Poland

폴란드사무소

폴란드는 지금 저당음료 시대

설탕 추방령이 키운 BFY 시장

폴란드 국민건강기금(NFZ Polska)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안건을 냈고 대형 유통마켓 체인 리들(Lidl), 비에드론카(Biedronka), 테스코(Tesco)는 PB상품의 설탕 함유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지 뉴스와 신문에서도 설탕의 해로움을 다룬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흐름을 타고 저염·저당·저지방 식품, 일명 'BFY(Better-for-you)'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설탕섭취 줄인 BFY음료 호평

물 대신 음료를 찾는 폴란드 소비자들은 설탕 함유량에 민감하고 저당, 저칼로리의 음료를 원한다.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BFY음료 중 저당 과일주스의 판매율은 2013년 4%에서 2018년 24.7%로 급등했다. 대형 유통업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폴란드 테스코는 PB음료 속 설탕을 100ml 기준 1티스푼 미만으로 줄이기로 발표했고, 폴란드 리들은 2025년까지 자사 제품의 설탕 함유율을 20%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無설탕 음료에 뛰어든 코카콜라

폴란드 코카콜라는 2018년 폴란드 BFY음료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저당음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지에서 코카콜라 오리지널 체리맛 대신 무설탕 버전 체리맛만 유통하며, 자사 브랜드 Coca-cola, Fanta, Sprite, Fuzetea에서도 끊임없이 무설탕 음료를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폴란드 코카콜라의 청량음료 판매량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카콜라 제로슈가(무설탕)의 시장 점유율이 1.3%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한국음료, BFY음료로서 수출 가능

유로 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 내 BFY음료 판매량은 2019년 연평균성장률 9%로 작년 대비 2% 더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억 즈워티(PLN)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확대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맛의 BFY음료들이 출시되며 패션 후르츠, 알로에 등 이국적인 무설탕 음료도 각광받고 있다. 다섯 가지 맛으로 미각을 자극하는 오미자 음료, 웰빙·건강 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존의 차 원료에서 레디 투 드링크(RTD)로 변신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녹차음료 등 한국음료의 긍정적인 수출 전망이 기대된다.

| 비탄산음료 브랜드 Fuzetea에서 올해 9월 출시된 무설탕 버전 패션후르츠맛 |

Key Point

건강한 맛의 한국 전통음료로 공략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경향이 생긴 폴란드에서는 BFY음료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오미자, 녹차음료 등 건강·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한국음료의 시장진출 전망이 밝다.

출처 : wyborcza.pl, parenting.pl, www.money.pl, www.portalspozywczy.pl, pl.sputniknews.com